

유명 가정용 살충제 자진 회수조치

식약청, 10개 성분 347개 살충제 안전성 조치 ... 허가기준도 강화

홈키파와 에프킬라 등 유명 가정용 살충제 브랜드의 일부제품에 대해 사실상 시장 퇴출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하고 있는 13개 성분 361개 살충제 가운데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유제를 함유한 16개 살충제를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살충제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단행했다.

식약청은 살충제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결정을 내렸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은 인지·운동능력 손상이나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역용 살충제로 쓰일 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허가가 아예 취소됐다.

회수·폐기대상인 16개 살충제 대부분은 가정용보다는 방역(소독)용으로 쓰이나 일부제품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일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알레트린(Allethrin) 에어로졸제 9개 살충제의 허가 성분함량을 0.25% 초과에서 0.25% 이하로 제한하고, 퍼메트린(Permethrin) 에어로졸제(해충기피제) 9개 살충제는 0.5% 초과에서 0.5% 이하로 변경했다.

알레트린과 퍼메트린 성분은 적정 농도에서 안전하지만 실내에서 과다 노출되면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농도에서도 살충력이 있기 때문에 허용 함량을 낮추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고 해외 부작용 사례도 대부분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미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회수조치로 결론이 났다.

대상제품 가운데는 홈키파 가보 에어졸, 홈키파수성가보에어졸, 에프킬라 에이치에어로솔, 삼성킬라 그린포스에어로솔, 홈가드 알파에어졸 등 유명 브랜드의 일부품목도 포함됐다.

식약청 김미정 연구관은 “현재 사용 농도에서도 유독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서 뿌리는 살충제를 이용하는 등 국내 사용 행태를 고려할 때 함량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솔 7개 성분 313개 살충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강화했다.

식약청은 해당성분은 유아에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표기하도록 해 시판 모기향에 6세 미만 영유아 관련 주의사항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김미정 연구관은 “영유아가 모기향을 삼키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을 태울 때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에도 과다 노출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08>